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국가 선도적 신규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 PROGRAM) 시행 규정 발표

직원, 고용주, 보험회사에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계획(Paid Family Leave Program)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

새로운 부모, 아픈 친척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현역 복무 중인 가족을 둔 직원은 유급 가족 휴가 혜택(Paid Family Leave Benefits)을 받을 자격이 있어

뉴욕 주민은 2018년 1월 1일부터 유급 가족 휴가 사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뉴욕주의 획기적 정책인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 Program)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고용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뉴욕주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자녀가 있거나,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가까운 친척을 돌보거나 또는 현역 복무 중인 가족을 둔 직원의 가정 부담을 줄이고자 휴직 동안 직장 복귀를 보장하고 대체 임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원은 휴가가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하고, 휴가 동안 건강 보험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이들 옆에 있어 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마침내 뉴욕 주민들은 더 이상 실업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우리 행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용주는 반드시 2018년 1월 1일에 유급 가족 휴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적시에 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 가족 휴가 보험료는 직원 급여 공제를 통해 자금 지원됩니다.

이 규정은 자격, 적용 범위,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의 단계적 도입 일정, 직원, 고용주, 보험 회사가 혜택을 지불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를 시행하는 산업재해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규정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2017년 5월 31일 채택하여 시행하는 보험사 규정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뉴욕주는 월급을 벌거나 아픈 자녀 또는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될 근면한 중산층 가정과 연대합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큰 혜택을 누릴 것이며, 뉴욕주를 다시 한번 다른 주가 따라야 할 모델로 만들 정책의 이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Kenneth J. Munnel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 역사적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고용주와 직원이 프로그램 시행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여 줍니다.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는 미래 대책을 준비하고, 뉴욕주의 근면한 근로 가정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의 Maria T. Vullo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FS는 일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Cuomo 지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는 근면한 가정에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재정적, 직업적 안정을 제공하는 선구자가 되어 왔습니다.”

보다 나은 균형(A Better Balance, ABB)사 공동 설립자 겸 공동 대표 Dina Baks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획기적인 유급 가족 휴가 법안을 위한 또 하나의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시작할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일하는 뉴욕 주민들이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것과 경제적 안정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이 역사적인 근로자 공약은 전국의 정책 입안자에게 있어 강력한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뉴욕 유급 휴가 연합(New York Paid Leave Coalition)의 Donna Dolan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유급 가족 휴가 법안의 최종 규정을 채택한 Cuomo 주지사님, 산업재해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및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을 공포하려는 주지사님의

야심차고 인상적인 헌신으로 인해, 뉴욕 주민들은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나, 심각한 상태의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부분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하고, 가족 중 누군가 현역 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판도를 바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삶을 변화시키는 혜택에 대한 기쁨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 행동(Citizen Action of New York)의 Karen Scharff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살필 시간이 절실하며, 누구도 가족 돌봄과 월급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주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가정, 커뮤니티 및 경제를 보호하고, 수년간 증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웹사이트 www.ny.gov/paidfamilyleave 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유급 가족 휴가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직통 전화 (844) 337-6303 으로 문의하세요.

유급 가족 휴가 기본 사항

유급 가족 휴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출생, 입양 또는 육아로 처음 부모가 된 경우, 첫 12개월간
- 심각한 건강 상태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부모, 사위, 조부모 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직원
- 배우자, 자녀, 동거인 또는 부모가 현역 군인으로 해외 파병된 경우, 이를 돕는 직원

직원 자격:

- 주당 20시간 이상의 정규 근무를 하는 직원이거나 26주 동안 근무한 후에 지원 가능합니다.
-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정규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175일 동안 근무한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 유급 가족 휴가 보장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기존 장애 보험 정책의 부칙으로서 포함되며, 직원 급여 공제를 통해 전액 지원됩니다. 2018년 최대 직원 분담금은 연간 뉴욕 주 평균 주급의 0.126%까지, 직원 주급의 0.126%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사설 고용주에게 의무적입니다. 공공 고용주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도입 일정: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1일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8년에 임직원은 뉴욕주 평균 주급의 50%까지, 직원 평균 주급의 50%으로 최대 8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12주간의

유급 휴가 시 뉴욕주 평균 주간 임금의 67%까지, 직원 평균 주급 임금의 67%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